

인사말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봄소식을 전하는 것은 겨우내 생명을 놓지 않고 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너그러움도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건디게 하고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박람회라는 향기로운 봄소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교는 전래된 이후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예술에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더불어 건축과 조각, 그리고 공예와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의 정신을 담아내고 일상생활과 접목한 산업의 꽃을 피워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불교문화 창달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선대의 귀범을 따르고자 하는 불교박람회는 한국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산업과 문화의 진면목을 조명하고, 불교예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뜻 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불교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불교산업 활성화와 정보 교류의 장을 성황리에 만들어 내고 침체된 관련 산업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붓다아트페스티벌’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불교계 최대 예술축제로 거듭나고 불교미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뜻 깊은 행사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종단이 주최하는 ‘2014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겠다는 서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총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즐겁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스티벌이 불교산업과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역할은 물론 찬란한 불교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로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이자 큰 마당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3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